

## 탄소시장 활성화 컨퍼런스 11월29일 개최

환경관리공단은 국제 탄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11월29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국제 탄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 관련활동과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정책방안을 공유하며, 개도국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의 발굴과 참여를 위한 실질적 전략과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서, 정부 및 환경 친화기업 등 산업계와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등 학계, 연구기관, 국내외 CDM 운영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 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지원 및 참여 정책에 관해 설명하며, 해외 전문가들이 국제 탄소시장 진출의 위기와 기회, 진출 전략 및 지침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타이와 말레이시아의 CDM 관련 전문가들이 개발도상국에서의 CDM 사업 잠재성 및 투자지침에 관한 설명과 관련 담당자간의 국내 CDM 사업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1/29>